나란다국제대학 2014년 닻 올린다

나란다국제대학(Nalanda International University)이 2014년 대장정의 닻을 다시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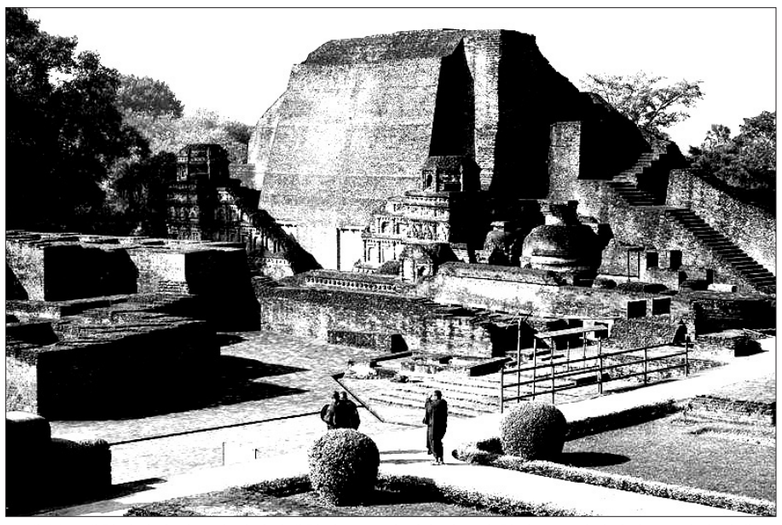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International Business Timse)〉는 최근 "나란다국제대학이 해외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이자, 고대 불교대학이었던 인도의 나란다대학이 1193년 이슬람군의 침략으로 약탈과 함께 파괴된 지 800여 년 만인 2014년, '나란다국제대학'으로 문을 연다"고 보도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 · 인도) 박사를 비롯해 인도 정계와 교육계 등 지난 2011년 3월 '나란다대학 재건'을 천명한 지 3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나란다대학은 과거 이슬람군의 방화로 3개월 동안이나 화염에 휩싸였을 정도로 세계 학문의 보고였다"고 전제한 센 박사는 "나란다국제대학은 인도의 황금시기를 이어받아 세계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이상과 자존이 깃든 곳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란다대학은 과거에 1만여 명의 학생과 2천여 명의 선생들이 불교철학을 위시한 여러 학문분야를 교육했던 대표적인 승원대학이었다. 이곳에서 현장 · 의정스님을 비롯해 중국과 신라에서 온 많은 유학승들이 머물러 수학했고, 멀리 그리스와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나란다국제대학 교육과정은 불교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보편적 담론을 담아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전제한 조지 요(George Yeo) 나란다국제자문단장(Chief of The Nalanda International Advisory Panel)은 "이에 따라 △역사학 △생태학, 환경학 △불교학 △철학, 비교종교학 △언어학, 문학 △정보과학과 기술(IT) △공공정책 및 개발연구 등 7개 분야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대 불교대학이었던 인도의 나란다대학이 1193년 이슬람군의 침략으로 파괴된지 800여년 만에 문을 열게 된다. 사진은 나란다대학이 있던 유적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 지 "세계 우수 학생 · 선생 유치 몰두"
건축비만 10억 달러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모금
불교학 생태학 역사학 등 7개 분야 교육과정 준비 중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 지에 따르면 나란다유적지에서 16㎞ 떨어진 레그히르(Raghir) 시에 들어설 나란다국제대학은 인도 중앙정부와 비하르 주정부를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축된다.

나란다국제대학의 건설 초기비용은 약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싱가포르는 건축설계와 700만 달러에 달하는 도서관을 건축 · 기증한다. 이와 함께 태국은 10만 달러, 중국은 1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센 박사는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예일대학, 추라롱콘대학(태국), 서울대학, 베이징대학 등이 '나란다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나란다국제대학이 성장하기에 지역 조건이 나쁘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 지에 따르면 인도 최고 빈민지역으로 꼽히는 비하르 주의 파트나(Patna) 시에서 88.8㎞나 떨어진 외딴 곳의 대학을 해외 우수 학생들과 교수들이 외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립 알트베취(Philip Altbach · 보스톤대학 국제고등교육연구센터장) 교수는 "'나란다대학'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은 몇몇 거장들(big thinkers)을 이끌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록 이웃 나라의 후원과 인도 중앙정부, 비하르 주정부의 지원이 있겠지만, 한적한 시골에서 우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재정이 필요한데, 과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센 박사는 "나란다국제대학의 출범은 지역 · 국가 · 대륙의 경계를 뛰어넘어 가까운 미래에 맞을 르네상스의 첫 시발점이자, 세계 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장정의 첫 관문"이라고 강조하고,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최대 현안인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에 단초가 되고, 향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파키스탄 불교유적 사라질 위기

3~4세기 유적 스왓트 계곡 3만㎡… 불법 도굴 극성


파키스탄 힌두쿠시 산맥에 있는 불교유적지가 밀수업자 · 도굴꾼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의 무관심에 고대 불교유적이 사리지고 있다.

〈트리븐(The Tribune)〉 지는 최근 "칸데라이(Kanderai) 지역의 유적지에서 밀수업자들의 무자비한 도굴과 파괴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유적지는 힌두쿠시(Hindu Kush) 산맥의 카라카르 패스(Karakar Pass) 산에 인접한 스왓트(Swat) 계곡에 위치해 있다.

〈트리븐〉 지는 이 지역의 유적을 조사하고 있는 이탈리아 고고학조사단의 의견을 인용, "법당, 승방, 전탑 등의 위치와 구조를 감안할 때 3~4세기경 조성된 불교공동체"라고 전하고 "여러 층으로 나뉜 승방과 거대한 물탱크 시설물 등으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며 수행과 노동을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이고, "보존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왓트 계곡 주민들은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 대부분 굴착 도구와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와, 유적 일대를 들쑤시고 다니지만, 관할 행정 당국이 제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30,000㎡에 걸쳐 펼쳐져 있는 스왓트 계곡의 불교유적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유적지 탁티바이(Takhtibhai)와 유사하다"고 강조한 올리비에리(Luca Maria Olivieri · 고고학자 · 이탈리아) 고고학조사단장은 "장엄한 고대 불교건축을 보는 것 외에도 무자비한 도굴 흔적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게 안타깝다"며 "파키스탄 정부는 이곳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탈리아 고고학조사단의 지표조사를 토대로, "스왓트 계곡의 불교유적이 아소카 시대를 전후해 파키스탄과 인도의 역사와 문화 등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라싸(Lasa), 개발로 정체성 사라져

中 대규모 쇼핑센터 건설 … 지역 주민 · 상인 이주 결정

중국 정부가 티베트 라싸에서 대규모 토지개발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 지는 "중국 정부는 이번 개발을 위해 라싸 지역의 상인과 주민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레스토랑, 갤러리, 선술집 등을 포함한 기업 유치에 나섰다"고 전하고, "이에 대해 '라싸의 자연환경은 물론 티베트 고유의 전통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반론이 거세다"는 데 주목했다.

'라싸 개발'은 홍콩의 유명 작가이자 파워블로거인 체링 웨서(Tsering Woeser · 티베트계 홍콩인)에 의해 처음 알려졌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지의 아미 리(Amy Li) 기자가 이를 게재해 세간의 이목을 잡았다.

이번 개발에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150,000㎡에 이르는 바코르 몰(Barkhor Mall)이다. 이 쇼핑센터는 라싸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조캉 사원의 지척 마을을 허물고 그 위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에는 1,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마련된다.

아미 리 기자는 체링 웨서의 말을 인용,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이미 '지하수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라싸의 지리적 특성상 지하수 고갈은 지반함몰 등의 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이주 이후 원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서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조캉사원이 세워진 라싸는 단지 관광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중국 정부의 상업적인 개발로 파괴되고 있는 티베트의 성지 라싸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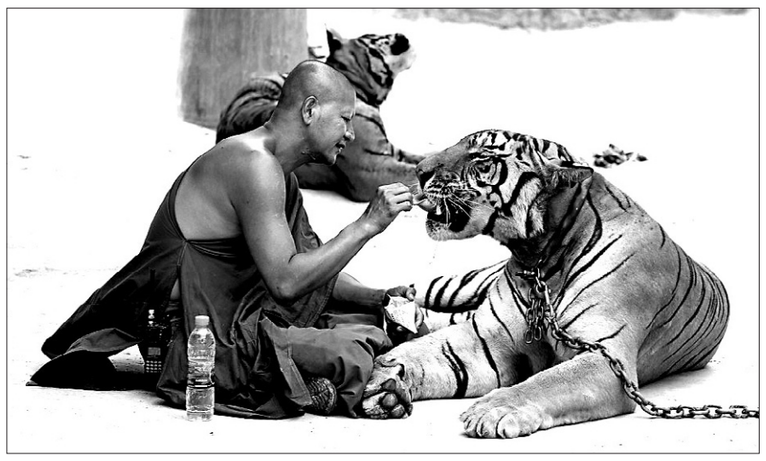

티베트 라싸에 150,000㎡에 이르는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의 호소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Weibo)에 공유되면서 수 만 개의 댓글을 낳았으나, 중국 정부의 검열이 시작되면서 그 수는 현저히 떨어졌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라싸 개발'에 대해 "중국 정부가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라싸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원회는 라싸의 원주민이 밀려나고, 옛 문화와 정신이 사라지는 상황을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642년 지어진 조캉사원은 티베트의 첫 불교사원이자, 순례자의 궁극적인 목적지이다. 이곳에는 달라이 라마의 겨울 궁전인 포탈라궁도 있는데, 두 곳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호랑이 사원' 또 논란 휩싸여

태국의 유명 관광지 '호랑이 사원'을 바라보는 동물보호운동가들의 눈총이 따갑다. 〈글로벌 애니멀(Global Animal)〉 지는 야생동물보호재단(The Care for the Wild)의 말을 인용, "사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호랑이의 건강과 관광객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방콕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깐자나부리(kanchanaburi) 주에 있는 이 사원은 100여 마리 호랑이를 키우며,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지척에서 호랑이를 구경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관광지 중의 한 곳이다.

〈글로벌애니멀〉 지에 따르면, 동물보호운동가들은 "사원의 사육 환경에 문제가 많다"고 전제하고 "위험한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원 측은 "사육을 맡은 스님들이 호랑이를 잘 돌보고 있고, 관광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어, '합법적인 호랑이 보호센터'라 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기도와 회향은 중요함
우울증, 알콜중독, 비만 악몽 가위눌림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치매, 암 중풍 예방 기도
조상영가 태아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대회
조상님 산소에 가서 잡초 잡목제거
여름방학 수련회 (3박 4일)
초,중,고등학생 부모, 일반인 참가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소원양초 대표 임익준
010-3815-7162 (주문환영)
천부경 수맥탐지특강
풍수지리 정태철 (법사.지사)
010-2797-1633
부산 - 제주, 부산 - 일본오사카
수륙천도재 하실 분 신청바람
대불정능엄신주 특별지도
꿈 바 위 불 교 교 육 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 합니다.
고복자 효사
02)738-8680